

광주 기업,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서 두각

오통, 사우디 'BIBAN' 2위 쾌거
무선송출·저방사선 엑스레이 주목
국내 첫 야외촬영 임시허가 획득
'K-스타트업' 원팀 상위권 휩쓸어

광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에서 500여 참가 기업 중 2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둬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스타트업 경쟁 부문에 참여한 총 500개 기업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쥬엔젤스윙'과 '쥬오통'이 각각 1등과 2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등을 차지한 쥬엔젤스윙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측량 데이터로 변환하는 분석 솔루션 개발한 기업으로 눈길을 끌었고, 특히 2등을 차지한 쥬오통은 광주에 소재한 지역기업으로 무선송출이



기존 엑스레이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줄인 휴대용 엑스레이를 개발한 광주기업 오준호(왼쪽) 쥬오통 대표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 스타트업 경쟁부문'에서 2위를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가능해 비대면 진료에 최적화된 저방사선 방출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쥬오통에서 개발한 이동형 엑스선 진단

시스템은 방사선에 의한 피폭수치를 95% 이상 줄인 초저선량 엑스레이로, 자연상태 방사선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의료기기업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저선량으로 차폐시설이 불필요해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과 휴대가 가능, 방사선 촬영 장치 중 국내 최초로 야외촬영 임시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오준호 쥬오통 대표는 "모든 환자들이 의료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이나 상용화 부분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국내 의료 기기 산업을 이끄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IBAN'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우디에서 시작한 중동지역 최대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이번 행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우디 상무부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 장관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낸 BIBAN 스타트업 경쟁부문은 사우디 알라딘 그룹과 미국 벤처캐피털 Draper그룹이 중동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주최

한 행사로 본선에 오른 13개팀 중 2개 한국기업을 포함해 3개 기업을 탑3로 선정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BIBAN' 스타트업 경쟁 부문에 참여했으며 1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의 K-스타트업 대표 기업이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쥬엔젤스윙과 쥬오통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 기술, 금융 등 정책지원을 받아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미국 Draper그룹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전망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BIBAN 2023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수상은 전 세계가 K-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조해 가는데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정장'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폴로랄프로렌 멘즈 매장에서는 오는 25일 단 하루 진행되는 나만의 맞춤 슈트 서비스를 사전 예약으로 진행한다. 이번 맞춤 슈트 서비스 예약은 23일까지 접수하며 해당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올해 S/S 클래식 슈트부터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원단과 스타일 모두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숙련된 장인의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세상이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맞춤 슈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국은행 '대학생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5월22~24일 신청서 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회에는 국내 대학(학부) 재학생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시의 경우 같은 학교 소속이라도 다수 팀이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 예선대회 진출팀은 학교(캠퍼스)당 2개 팀 이하로 선정된다.

참가 신청 시 소속 지역은 학교(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팀을 구성해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다.

예시 결과는 서면평가를 거쳐 6월 셋째

주(15일~16일 중) 한국은행 홈페이지,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한다.

예시를 통한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팀은 '7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 주요 근거 등을 담은 발표 자료(PPT)를 7월 11일~12일 중 제출해야 한다.

예선 대회는 7월 19일~20일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결선대회에는 각 지역예선대회(분리지역은 각 그룹) 최우수상 수상팀이 진출한다.

결선 진출팀은 '기준금리 결정(8월 통화정책방향)'의 발표자료(PPT)를 8월 7일 제출하면 된다. 결선 대회는 8월 중순경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84, 4649, publicinfo@bok.or.kr) 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062-601-1113, gwangju@bok.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 '증가'... 전남은 '감소'

광주본부세관, 지역 수출입동향

전년비 광주 11.0%↑ 전남 20.1%↓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한 47억3200만 달러, 수입은 20.8% 감소한 35억98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1억3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수출장비와 가전제품 수출이 증가했고, 전남지역은 석유제품과 화공품 수출이 감소했다.

올해 2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0.8% 감소했고, 수입은 12.2% 감소해 무역수지는 15억9400만 달러 흑자

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한 13억7200만 달러, 수입은 27.9% 감소한 5억1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56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품목별로 수출장비(92.1%)·가전제품(41.3%)·타이어(22.9%)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34.5%)·기계류(25.0%)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8.6%)·기계류(9.6%)·고무(49.8%)·화공품(62.1%)·가전제품(62.1%)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미국(118.0%)·중남미(37.6%)·EU(14.9%)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33.1%)·중국(34.6%)이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6.6%)·EU(15.5%)가 늘어난 반면, 동남아(43.6%)·미국(29.4%)·일본(18.8%)이 줄었다.

전남지역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1% 감소한 33억6000만 달러, 수입은 19.4% 감소한 30억8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7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기계류(33.1%)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7.2%)·화공품(20.1%)·수출장비(28.6%)·철강제품(71.3%)이 줄었다. 수입은 석유제품(34.9%)이 증가한 반면, 원유(18.4%)·석탄(30.1%)·철광(42.5%)·화공품(33.4%)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은 호주(9.7%)가 증가한 반면, 중국(32.9%)·동남아(34.1%)·EU(25.9%)·미국(9.1%)이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1.2%)이 늘어난 반면, 중동(17.7%)·호주(34.5%)·동남아(28.6%)·중남미(43.3%)가 줄었다.

최권범 기자

지역 산단 입주기업 대상 애로 설문조사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부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함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애로 및 불필요한 규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

과 불필요한 규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예정이며 특히 국회·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건의 및 정책 반영 사항, 법령·지침 등의 제도개선, 다수의 기업이 겪는 애로 등은 중점규제 애로로 분류해 조치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

시하며 스마트폰(문자·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답변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인철 회장은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SMART 자판기' 이벤트 마련

비대면 채널 예·적금 가입자 경품

광주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SMART 자판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SMART 자판기' 이벤트는 최근 1년 이내에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개

인뱅킹 앱(APP), 모바일웹 등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고객은 비대면 채널로 적금 월 10만원(또는 외화적금 미화 100달러) 이상 정기예금 100만원(또는 외화예금 미화 1000달러) 이상 가입 후 광주은행 개인뱅

킹 앱(APP) 이벤트 메뉴의 'SMART 자판기'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CU편의점 5000원 상품권·다이소 5000원 상품권 중에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전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동안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고 'SMART 자판기'를 통해 경품을 선택한 선착순 4000명의 고객에게 매주 수요일에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